

추진기획단 본부장 사퇴... 또 문화도시사업 어떻게 되나

문화전당 설계 등 기본계획 수정 불가피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행정 총괄을 맡았던 이영진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 본부장이 사퇴함에 따라 문광부 중심의 사업추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본부장의 퇴진은 송재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 졸권 주장해온 것이어서 조성위의 위상과 역할 확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 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 지금까지 문광부 주도로 진행돼 온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문광부는 후임 본부장을 다음 주 중 공모를 통해 뽑거나 문광부 내 공무원 중 선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광부에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부 인사 영입 보다는 업무에 정통한 내부 직원 발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상 앞으로 광주시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 및 지역사회

송위원장 "사업 추진 일정은 중요치 않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협의회' 구성 참여 천명

와의 화합이 필수적인 만큼 광주지역 인사를 공모 등을 통해 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본부장 퇴진으로 조성위의 역할은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송 위원장이 문광부 중심의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의를 제기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조절뿐 아니라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의 변화를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광주에서 광주 시의회 문화수도특위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은 일정에 맞춰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4월 30일까지 종합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

지 않느냐'는 손재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대통령에게도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확정하기 보다 다음 대통령이 흔쾌히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와 광주시, 조성위 등 3개 추진주체간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이 장관을 만나려 해도 만날 수가 없고 장관과 시장, 위원장간 3자 회동이 단 1차례에 불과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관망해왔던 시민단체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광주·전남 문화연대와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경실련 등 광주 지역 10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안에 '광주문화도시협의회'를 결성하는 한

편, 범시민기구를 만들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운동을 펼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협의회 결성을 알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문화 실험적 기능이 강한 문화전당을 시민과 관광객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가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추진기획단 본부장 후임 인사와 함께 문화전당을 비롯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방향을 재정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광부와 광주시 및 지역 사회단체가 크게 견해 차를 보여왔던 ▲ 문화전당 설계형태와 주요 기능 ▲ 문화산업 육성 방안 ▲ 도심 재구성 방안 등은 종합계획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5~6월중 중도통합신당 출범 정권창출에 정치생명 걸겠다"

민주당 당권 도전 선언 박상천 前대표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가 돌아왔다. 오는 4월 3일 열리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대표 경선 출마 배경과 관련,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정계개편 및 대선 과정에서 양대 정당으로 도약하지 못한다면 결국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며 이는 호남 정치세력의 쇠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특유의 원칙주의적 안고함으로 민주당의 통합 발걸음이 느려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전대표는 "대표에 당선된다면 중도통합신당을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일축하며 "중도통합신당의 정권창출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대통합 신당은 '대선 필패 카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권창출을 위해 한 나라당 세력을 모두 모으자는 '대통합신당론'은 '도로 우리 당'이라는 국민의 평가가 이어져 대선에서 필패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주도 세력과 좌파 성향이 강한 사수파가 혼재된 대통합신당은 오히려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을 열어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현재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가 높은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경제



가 좀 나아지지"하는 국민의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품이라고 진단한 박 전 대표는 대선 필승 카드로 '중도통합

신당론'을 제시했다. 즉, 중도통합신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쉰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선후보를 잘 뽑는다면 국민의 폭발적 지지로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도통합신당의 원칙으로 민주당의 법통과 정통성을 계승하고 위장이 아닌 진정한 중도개혁주의자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선 구도와 관련, 박 전 대표는 "한 나라당, 중도통합신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4당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며 "그러나 결국 민주당의 법통을 승계한 중도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17대 총선 이후 흑독한 시련 속에서 열린우리당 주도 세력과 좌파 성향이 강한 사수파가 혼재된 대통합신당은 오히려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을 열어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현재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가 높은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경제

"범여 통합 위해 민주 의원들 탈당할 수도"

한화갑 민주당 前대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현역 의원들의 탈당까지 거론하며 범여권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마찰이 생길 경우, 새정치 국민회의 창당 방식으로 현역 의원들이 의견을 결집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복귀와 대선 출마를 위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구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기록적이었던 점에서 한 전 대

표의 이 같은 주문은 사실상 원외가 통합을 반대할 경우, 탈당도 불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대표 출마에 나선 박상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그 같은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전 대표는 또한, "민주당의 정통성과 법통을 이어받지 않는 통합은 의미 없는 것"이라며 "통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등 여당 정당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대통령 탈당 정계개편 탄력

2년 9개월만에 우리당 당적 정리

우리·통합모임 통합 논의 재점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함에 따라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여오던 범여권 중심의 정계개편 추진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태호 청와대 정부팀장을 우리당 중앙당사로 보내 송영길 사무총장에게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기각 직후인 2004년 5월20일 우리당에 입당한 지 2년9개월여 만에 여당 당적을 정리하고, 무당적으로 마지막 임기 1년을 보내게 됐다.

노 대통령은 탈당계 제출에 앞서 당적정리 심경을 담은 '열린우리당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국민통합과 새로운 정치라는 창당정신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고, 열린우리당이 멀리 내다보고 나라의 역사를 열어가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단일 대통령의 한계"라면서 "야당으로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선거전략상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 자연 대통령은 집중 공격의 표적이 된다. 여당 또한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보다 차별화해 거리를 두는 것이 유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을 방문한 정태호 청와대 정부 비서관(오른쪽)이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신고서를 송영길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당과 노 대통령의 법적 연계고리가 끊어짐에 따라 이전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대선정계에 입하면서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생정치모임 등과의 정계개편 주도권 경쟁에 한층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의 탈당계가 접수된 직후 시내 백범기념관에서 대통령신당추진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신당추진의 기본 방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기구에는 정세균 의장을 위원장으로 김원기·문화상 상임고문, 배기선·유인태·이미경·이경숙·임종석·박병석·박광광·민병두 의원과

몇몇 원외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당이 신당추진의 속도를 내는 데 대해 탈당과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은 "우리당 주도의 통합신당 추진은 무의미하다"며 평가절하하면서 외부세력 접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우리당이 어떤 형태로 통합수입기구를 구성하든 간에 우리당이 주도하거나 우리당이 중심이 되는 통합신당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이라며 "우리당이 통합신당 추진기구를 띄우더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시간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yuhan.co.kr

광고심리팀 : 902-0100

콘택 골드도 늦기전에!

초기감기는 시간과의 싸움

감기는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걸렸구나 생각되면 콘택골드! 감기는 초기에, 늦기전에 콘택골드입니다.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유행병관 소비자 상담실 060-0204-1188(수신료 무료) 광주 062-950-5400 대구 053-750-0515 서울 02-627-3021 부산 051-042-4971